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입 되겠다”

다큐·도서 등 콘텐츠 제작 통해 5·18 전파

■ 3년간 5·18다큐 연출 광주MBC 김철원 기자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입이 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스피커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MBC 김철원 기자는 기자가 되기 전 목표를 떠올리며 아직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자부했다.

김 기자는 지난 3년간 광주MBC 5·18 다큐멘터리를 연출하면서 15년 전 다짐을 보여줬다. 수많은 언론에서 다른 인물이 아닌 이름 없는 시민들을 조명하기 시작한 것.

“광주와 5·18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해준 이름 없는 시민들에게 빛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 사람이라면 광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더 자세히 알고 기억하려 한다고 생각했고,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과 이야기를 발견하기도 했죠.”

취재 과정이 평탄치 않은 않았다. 겨우 상처가 아물어가는 유족들을 설득하

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그러나 김 기자는 올해 방송한 특집 다큐 ‘두 개의 일기’를 통해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전태일 열사의 절친 정원섭씨를 최초로 인터뷰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윤상원 열사가 노동운동에 투신했다는 사실을 여러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알게됐다”며 “절친 정원섭씨를 미국에서 찾아 전태일 열사가 남긴 존재조차도 몰랐던 편지를 48년 만에 전달해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잊혀진 열사들을 다룬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발포명령자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그의 이름은’·항쟁의 뿌리인 순결한 영혼들의 이야기 ‘두 개의 일기’ 등 3편의 다큐멘터리와 광주항쟁과 유월항쟁을 잇는 저서 ‘그들의 광주’를 출간했다.

처음엔 기획보도에서 시작됐다. 김



김철원 기자가 다큐멘터리 취재 당시 전태일 열사 친구 정원섭씨(사진 왼쪽)와 미국에서 찍은 사진.

기자는 “2010년대 초 ‘일베’의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주장을 접하고 나서 콘텐츠에 주목하게 됐다.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광주가 또 한 번 상처를 받게구나 싶어 광주 사람이자 광주의 언론인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5·18을 잘 모르는 어린 시민들을 위해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11일 서울과 6월 15일 광주에서 5·18 다큐 상영회를 개최해 5·18 콘텐츠를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켰다. 마지막으로 “취재와 연구를 거듭해 광주 사람들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5·18 콘텐츠로 찾아뵙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이보람 기자



영광경찰, 여성 악성범죄 경찰대응 실태 조사 중간 점검

영광경찰서는 지난 15일까지 30일 간 기관 합동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여성 악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중간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북구새마을회, 재활용의류모으기 경진대회

광주시북구새마을회(회장 임순환, 부회장 문희숙)는 최근 동림동 산동고 하천 부지에서 북구새마을회 소속 27개동 새마을회가 참여한 가운데 재활용의류 모으기 경진대회를 실시해 약 13톤의 헌 옷을 모았다.



아시아희망나무-광주은행 캄보디아 의료봉사

백내장 수술비 전액 지원 나눔 실천

사단법인 아시아희망나무(이사장 서정성)는 18일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캄보디아광주진료소에서 해외의료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을 맞아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과 JB지주 계열사 봉사단, JB지주 계열사 인 캄보디아프놈펜상업은행 직원이 함께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뤄졌다.

봉사활동은 진철 아이안과 서정성 원장, 조선대학교 정형외과 조용진 교수, 순천향대학 부천병원 김호중 응급의학과 교수, 파주 문산제일안과병원 임동권 원장 등 의료진이 캄보디아광주진료소 인

근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안질환 환자 38명을 대상으로 백내장(21명), 후발백내장(14명), 의상편(3명) 등 안질환 수술이 이뤄졌고, (사)아시아희망나무와 광주은행은 수술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사)아시아희망나무 서정성 이사장은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인 광주은행이 희망 나무와 뜻 깊은 행사를 함께 진행하게 돼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데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보훈병원, 고려인마을 ‘사랑의 이동진료’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보훈병원(원장 김재후)이 독립투사 후손들의 집단거주지인 고려인마을을 찾아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의료 지원에 나섰다.

광주보훈병원은 지난 2월 의료취약계층 의료봉사사업 일환으로 광주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김라리사(43·여)씨의 수술지원에 나서 설명회 고려인마을에 기쁨을 큰 기쁨을 선사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광주보훈병원은 의료취약계층 의료봉사 확대를 위해 고려인 마을과의 자매결연 협약을 추진했다.

지난 12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고려인마을을 찾은 김재후 원장과 박용수 고려인행동위원장은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앞 광장에서 광주보훈병원

임직원과 고려인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또한 광주보훈병원은 고려인마을에 후원물품으로 사랑의 쌀(5kg) 40포를 전달하고 고려인광주진료소를 찾아 보훈병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사랑의 이동진료’를 실시했다. 오형균 제1진료실장 등 2명의 의사와 4명의 간호사, 6여 명의 직원이 함께했으며, 이날 보훈병원의 무료 진료 소식을 접한 고려인마을 주민 144명이 찾아와 광주보훈병원의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광주보훈병원은 고려인마을과의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바탕으로 광주거주 고려인 후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군청 황창연 주무관 ‘LG의인상’

브레이크가 풀려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는 자동차를 온몸으로 멈춰 세워 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들을 구한 진도군청 황창연 주무관(50)이 ‘LG의인상’을 받는다.

18일 진도군에 따르면 LG복지재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내던진 황 주무관의 용기 있는 행동을 우리 사회가 함께 격려하자는 의미로 ‘LG의인상’을 전달하기로 했다.

황 주무관은 지난달 28일 퇴근하던 중 진도군 진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경사로에 주차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갑자기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차 안에는 학원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 여섯 명이 타고 있었다.

황 주무관은 미끄러지는 차로 곧장 달려갔고 몸을 반쯤 차 안으로 집어넣어 기어를 바꾸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겨 차를 멈춰 세웠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바닥으로 튕겨 나가 척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진도=박병호 기자



제13회 전남119소방동요대회 ‘우수상’

보성동화나라어린이집 합창단원 21명 합창

보성소방서는 최근 전남도청 대대중앙에서 열린 ‘제13회 전남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보성동화나라어린이집이 출전, 유치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감정과 정서를 담은 노래로 자연스럽게 안전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전남 14개소방서 대표로 선발된 유치부와 초등부 14개 팀이 참가했으며 보성동화나라어린이집에서는 ‘따라가자 말아요’ 소방동요를 21명의 어린이들이 합창했다.

합창단을 지도한 전은비 교사는 “대회 준비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동요를 통해 소방안전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보성=선상희 기자



전남농기원, ‘메가쇼 2018 시즌1’ 박람회 참가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의 우수 가공식품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판매하기 위해 가공식품 생산농가로 판촉단(9명)을 구성,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메가쇼 2018 시즌1’ 박람회에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광산구 어룡동 지사협 음악회

광주 광산구 어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이야기꽃도서관에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와 문화소외계층을 초대해 ‘나라사랑 동구 밖 작은음악회’를 열었다.



광산 운남동 바르게살기위 삼계탕 대접

광산구 운남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최근 어르신 200여명을 동 주민센터에 초청, 점심으로 삼계탕을 대접하고 노래와 춤이 있는 작은 공연도 선보였다.



언론단체, 프레스센터 환수 서명운동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언론인 서명운동’ 출범식을 갖고 ‘프레스센터를 두고 진행되는 정부 산하기관 간 소유권 분쟁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